MARU

Houses & Interiors
Lifestyle Design



ARTS & OBJECT

Espace solaire _Aire commune

Home & Houses

Xingu House_TETRO

The chalet where the music lives_Atelier FCA

Home Wilhelminalaan_Studio Modijefsky

Pine Island Cottage_Thom Fougere & Bureau Tempo

A villa in the pine forest _Deferrari + Modesti

Apartment Interors

Penthouse Apartment _Bella Simon Interior Design

Old Town Dubai_ Irina Ivchenko, Elamo Studio

Home Herengracht_Studio Modijefsky

Casa Continua _STUDIOTAMAT

cover_© Alex Lesage, Thom Fougere

Vol. 288

ISSN 1599-5461

Archi Object

Espace solaire

Aire commune



위치: 몬트리올 올림픽 공원, 몬트리올, 퀘벡, 캐나다
완공연도: 2026년
설계 및 구현:에어 코뮌
프로젝트 파트너: 퀘벡 정부
몬트리올 올림픽 공원,
기술 협력자:선버드 에너지.

원자 수두르,
베통
다중 표면,
CR34TE, 라 파브리크 올우드

Location: Montréal Olympic Park, Montréal, Québec, Canada
Year of completion: 2026
Design and implementation: Aire commune
Project partners: Government of Québec (Ministère des Affaires municipales et de l'Habitation), Montréal Olympic Park, Sunbird Énergie.
Technical collaborators: Atomic Soudure, Béton Multi Surfaces, CR34TE, La Fabrique Allwood

에스파스 솔레르_에어 코뮌

퀘벡 최초의 태양 에너지로만 운영되는 야외 공공 공간인 '태양광 공간(Espace soleil)'이 공개되었다. 올여름부터 방문객들은 몬트리올 올림픽 공원 중심부에 조성된 이 새로운 상설 시설을 경험할 수 있다. 도시 디자인, 조경 건축, 에너지 혁신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태양광 공간'은 에너지 생산을 공공 공간 디자인에 직접 통합하는 방법을 탐구한다. 이 공간은 사람들이 모여 휴식을 취하고 야외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늘막, 통합형 가구, 와이-화이 지원 작업 공간, 전기 콘센트, 조경 등이 어우러져 하루 종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 프로젝트는 에너지 인프라를 별도의 기술적 요소로 취급하는 대신, 건축물에 직접 통합했습니다. 태양광 패널은 디자인의 일부로 드러나 공간의 기능과 정체성에 기여한다. "에스파스 솔라는 의미 있고 지속 가능하며 접근성이 뛰어난 공공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우리의 비전을 구현한 공간입니다. 태양 에너지를 디자인에 완벽하게 통합함으로써 혁신, 쾌적함, 그리고 에너지 전환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라고 에어 코뮌의 공동 설립자 필립 펠레티에는 말한다.

에너지가 디자인의 일부가 되다

선버드 에너지(Sunbird Energy)와의 협력으로 개발된 이 에너지 시스템은 태양광 발전, 에너지 저장, 그리고 지능형 전력 관리를 결합하여 공간 내 다양한 편의시설에 에너지를 공급한다. 디자인 초기 단계부터 이 에너지 인프라는 가구, 식물, 그늘막, 조명과 함께 프로젝트의 핵심 요소로 고려되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에너지 인프라를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동시에 건축적 잠재력을 탐구할 수 있었다.

"올림픽 공원의 에스파스 솔레이(Espace soleil)는 에너지 전환에 있어 인프라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지 소규모로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단순한 기술 전시를 넘어, 이 프로젝트는 현장 태양광 발전, 에너지 저장, 그리고 지능형 전력 관리가 퀘벡주의 에너지 전환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공합니다."라고 선버드 에너지의 설립자 겸 사장인 사이먼 라플뢰르(Simon Lafleur)는 덧붙였다.

올림픽 공원 중심부에 새롭게 자리 잡은 명소

퀘벡의 대표적인 건축물 중 하나인 올림픽 공원 내에 위치한 에스파스 솔레이는 공원이 연중 내내 즐길 수 있는 활기차고 접근성 좋은 도심 공원으로 변모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에스파스 솔레이의 개장으로 우리 공원은 방문객의 변화하는 요구에 더욱 잘 부응하고 지역의 활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영구적인 야외 설치물은 지속 가능한 디자인으로 방문객 경험을 향상시키는 활기차고 접근성 좋은 명소, 바로 올림픽 공원의 미래에 대한 우리의 비전을 완벽하게 반영합니다."라고 올림픽 공원의 사장 겸 씨오인 조엘 브로되르는 말했다.

에어 코뮌(공용공간)
2017년에 설립된 에어 코뮌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도시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공간과 이벤트를 기획한다. 플레이스메이킹 도시 디자인, 이벤트 제작을 전문으로 하며, 프로젝트의 전략 수립부터 현장 실행까지 전 과정을 총괄한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팀, 자체 제작 워크숍, 그리고 캐나다 전역에 걸친 폭넓은 파트너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에어 코뮌은 지역 사회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험과 공간을 창조한다

About Aire commune
Founded in 2017, Aire commune designs places and events that bring people together and energize urban life. Specializing in placemaking, urban design and event production, Aire commune manages every stage of a project, from strategy to on-site execution. With a multidisciplinary team, an integrated fabrication workshop and an extensive network of partners across Canada, Aire commune creates experiences and spaces that make a lasting impact on communities.


ESPACE SOLAIRE
DU PARC OLYMPIQUE
ESPACE DE TRAVAIL EXTÉRIEUR GRATUIT
Un lieu accueillant, connecté et accessible, au cœur du Parc olympique.
UN PROJET INNOVANT ET DURABLE
Bienvenue dans la première place publique extérieure au Québec entièrement alimentée à l'énergie solaire!
Pensé pour répondre aux besoins des personnes qui vivent, travaillent ou visitent le Parc olympique, l'espace combine utilité, accessibilité et durabilité. En générant sa propre énergie solaire, il constitue un exemple concret de transition énergétique en milieu urbain.
LE SAVIEZ-VOUS ?
Grâce à ses panneaux photovoltaïques bifaciaux, l'Espace solaire génère jusqu'à 6 500 kWh d'électricité propre chaque année.
Ce qui équivaut à :
124 800 heures de travail sur un ordinateur portable
soit plus de 416 sessions universitaires complètes
48 heures de chauffage du bassin du Centre sportif
plus de 300 000 visiteurs s'amusent et s'entraînent chaque année.
4 600 km parcourus en voiture électrique
un peu plus qu'un tour complet de la Terre
UN DESIGN ICONIQUE ET DURABLE
Conçue pour traverser les saisons et les années, l'installation s'inspire du mobilier emblématique conçu par François Dallegret pour les Jeux olympiques de Montréal de 1976. Son design épuré, fait de béton et d'acier perforé, s'enrichit d'une végétation soigneusement intégrée, créant un environnement intemporel propice à la détente.
CE QUI EST OFFERT
• Wi-Fi gratuit
• Prises électriques
• Mobilier extérieur conçu pour le travail en plein air
• Accessible à toutes et à tous
CONNECTEZ-VOUS !
Wi-Fi gratuit
Nom du réseau : espace-solaire
REMERCIEMENTS
Ce projet est imaginé et réalisé par Aire commune avec le soutien financier du gouvernement du Québec, en collaboration avec le Parc olympique et Sunbird Énergie.
Québec
PARC OLYMPIQUE
SUNBIRD Énergie
AIRE COMMUNE

Aire commune unveils Espace solaire, Quebec's first outdoor public space powered entirely by solar energy. Since this summer, visitors have been able to experience this new permanent installation in the heart of Montreal's Olympic Park. At the intersection of urban design, landscape architecture and energy innovation, Espace solaire explores how energy production can be integrated directly into the design of a public space. The site was conceived as a place to gather, relax and work outdoors. Shaded structures, integrated furniture, Wi-Fi-enabled workspaces, electrical outlets and landscaping create an environment designed to accommodate a variety of uses throughout the day.

Rather than treating energy infrastructure as a separate technical component, the project integrates it directly into the architecture of the site. The solar panels become a visible part of the design, contributing to both the function and identity of the space. "Espace solaire embodies our vision of creating meaningful, sustainable and accessible public spaces. By fully integrating solar energy into the design, we are demonstrating that innovation, conviviality and the energy transition can go hand in hand," says Philippe Pelletier, co-founder of Aire commune.

When energy becomes part of the design

Developed in collaboration with Sunbird Énergie, the energy system combines solar power generation, energy storage and intelligent power management to supply the site's various amenities.

From the earliest stages of the design process, this infrastructure was considered an integral component of the project, alongside furniture, vegetation, shade and lighting. This approach makes the energy infrastructure visible while exploring its architectural potential. "Espace solaire at Olympic Park represented a great opportunity for us to demonstrate, on a smaller scale, the important role infrastructure will need to play in the energy transition. More than a showcase for technology, this project provides a tangible example of how on-site solar generation, energy storage and intelligent power management can help support the province's energy transition," adds Simon Lafleur, founder and president of Sunbird Énergie.

A new destination in the heart of Olympic 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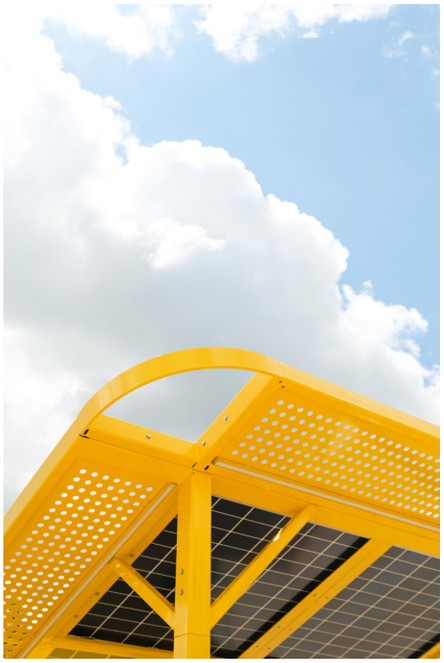
Located within Olympic Park, one of Quebec's most iconic architectural landmarks, Espace solaire contributes to the site's ongoing transformation into a vibrant, accessible urban park that can be enjoyed year-round. "With the arrival of Espace solaire, our public urban park continues to evolve to better meet the changing needs of our visitors and contribute to the vitality of the area. This permanent outdoor installation perfectly reflects our vision for the future of Olympic Park: a vibrant and accessible destination featuring sustainable design that enhances the visitor experience," adds Joëlle Brodeur, President and CEO of Olympic Park.


















ESPACE SOLAIRE
DU PARC OLYMPIQUE
ESPACE DE TRAVAIL EXTÉRIEUR GRATUIT
UN PROJET INNOVANT ET DURABLE
LE SAVIEZ-VOUS?
UN DESIGN ICONIQUE ET DURABLE
CE QUI EST OFFERT
• Wi-fi gratuit
• Prises électriques
• Mobilier extérieur conçu pour le travail en plein air
• Accessible à toutes et à tous
CONNECTEZ-VOUS !
Wi-fi gratuit
Nom du réseau : espace-solaire
REMERCIEMENTS



The Renaissance of the "Living" Museum

KANVA



'살아있는' 박물관의 르네상스

칸바건축

설계 칸바(NEUF와 협업) **리더 건축가** 라미 베바위 **전기, 가계** 부틸레트 파리조회사 **구조** NCK inc. **조명디자인** 폴 팀 **무대디자인** 아니크 라 비소니에르 **박물관학** 나탈리 마트 **음향** Sofit dB **시방서** 아뜰리에 6 **사진** v2com

칸바건축

2003년에 설립된 칸바는 몬트리올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여러 분야 전문가 건축 집단이다. 15명의 역동적인 건축가들로 구성된 칸바는 공동의 공간을 구상하고, 상상하며, 설계하고, 구축하는 일의 최전선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칸바는 구축된 환경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이를 변화시키고자 노력하며, 모든 프로젝트를 하나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기회이자 예술과 건축 사이의 영역을 확장하고 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로 삼는다. 칸바는 건축, 예술, 과학을 도구로 활용하여, 그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구축된 환경을 변화시켜 나간다. 다수의 상을 받은 이 건축 사무소는 그동안의 작업 성과를 인정받아 여러 차례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그중에는 캐나다 왕립 건축가 협회가 수여하는 '2015 신진 건축 사무소 상'도 포함되어 있다. 가장 최근에는 2021-22 두바이 엑스포 캐나다관에 설치될 예술 작품을 제작할 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살아있는' 박물관의 르네상스: 몬트리올 바이오돔

몬트리올에 기반을 둔 건축 사무소 칸바는 건축적 형태와 모양의 경계를 넘어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들은 최근 새롭게 단장한 '바이오돔'을 공개하며, 그 섬세하면서도 웅장한 면모를 선보였다. 몬트리올의 과학 박물관인 바이오돔은 방문객들이 다양한 생태계의 실제 환경 속으로 완전히 몰입할 수 있도록 구성된 공간이다.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을 위해 지어진 옛 벨로드롬(자전거 경기장) 건물에 자리 잡은 바이오돔은 1992년에 문을 열었다. 이곳은 캐나다에서 가장 많은 관람객이 찾는 박물관 시설군(群) 중에서도 핵심적인 명소로 꼽힌다. 2014년 국제 건축 설계 공모전에서 우승한 칸바는 바이오돔, 플라네타륨(천문관), 곤충관, 식물원의 운영을 총괄하는 기관인 '스페이스 포 라이프'로부터 2천 5백만 달러 규모의 이 프로젝트를 의뢰받았다.

복합적인 서사

프로젝트 초기부터 칸바는 이 건물이 지닌 엄청난 복잡성을 면밀히 연구했다. 바이오돔은 생태계와 생명 유지를 위한 매우 복잡한 기계 장치들로 구성된,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았기 때문이다. 칸바는 어떠한 개입이라도 매우 섬세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으며, 이처럼 거대한 규모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미세한 개입들을 세심하게 조율하고 관리하는 포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모든 결정 과정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협의가 필수적이었으며, 이는 칸바가 구상한 서사를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합친 진정한 협업의 과정이었다. 베바위는 "모든 참여자가 전체적인 비전을 이해하고,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그 비전을 공유했습니다"라고 말한다. "이는 매우 영감을 주는 경험이었으며, 앞으로 디자인을 통해 환경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한 하나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공간 구성적 측면에서, 칸바는 건물이 지닌 건축적 유산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탈바꿈 가능한 공간들을 주목하는 것에서부터 설계를 시작했다. 새로운 중심부(코어)를 조성하고 건물 입구의 지나치게 낮았던 천장을 철거함으로써, 방문객들은 기존 공간이 가진 인상적인 규모감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 천장을 완전히 걷어내자, 건물은 하늘을 향해 활짝 열리게 되었다. 그곳에는 거대한 채광창 패널들로 이루어진 특별한 지붕이 자리하고 있어, 풍부한 자연광이 내부로 쏟아져 들어온다.

차분함을 선사하는 중심부

여러 생태계 사이의 핵심 공간으로 거대한 개방형 공간이 자리 잡게 되자, KANVA는 이 생태계들을 감싸 안는 '살아있는 외피'를 파라메트릭 디자인 기법으로 설계했다. 이 외피는 방문객의 여정을 안내하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 매우 복잡한 구조 공학이 요구된 이 순백의 생태 지향적 외피를 설치하는 작업은 그야말로 거대한 도전이었다. 작은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외피는 곡선을 그리며 알루미늄 구조체를 감싸도록 설계되었다. 장력(tension)과 캔틸레버 구조, 그리고 삼각형 보를 활용해 매달린 형태를 갖추었으며, 전체 구조는 다시 주된 강철 골조에 단단히 고정되었다. 또한, 다양한 움직임을 수용하고 현장에서 미세한 조정이 가능하도록 기계적 접합부도 함께 적용되었다.
반투명한 외피는 상부의 채광창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며, 비스듬하게 처리된 수평선은 차분함과 무한한 확장감을 자아낸다. 이 새로운 중심부는 방문객들에게 순수하고 중립적인 상태에서 시작해, 인접한 생태계들을 마주하며 다채로운 감각을 발견해 나가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라미 베바위는 이렇게 설명한다. "이것은 매우 강력한 장치입니다. 길이는 0.5km에 달하고 높이는 거의 4개 층에 육박하죠. 이 공간을 상징하는 핵심 요소이며, 순수한 흰색은 기존 콘크리트 구조와 아름다운 대비를 이루며 그 가치를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감각적 디자인

칸바는 관람 여정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새로운 동선을 설계했다. 기존의 선형적인 관람 경로를 더욱 역동적인 경험으로 탈바꿈시키고자 한 것이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은 25만 마리 이상의 동물과 500종의 식물이 서식하는 바이오돔 내 5개 생태계를 스스로 주도적으로 탐험하게 된다. 더욱 몰입감 있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칸바는 감각을 자극하는 데 집중했으며, 시각보다는 청각, 후각, 촉각을 우선시하도록 설계했다. 차분한 분위기의 로비 홀에서부터 물결치듯 이어지는 '살아있는 외피'는 방문객들을 10미터 길이의 터널을 거쳐 중앙 코어로 안내한다. 이곳에서부터 열대우림, 로렌시아 단풍나무 숲, 세인트로렌스만, 아남극 제도, 래브라도 해안 등 5개 생태계에 대한 본격적인 탐험이 시작된다. 입구 터널은 바닥 경사가 매우 완만하게 설계되어 있는데, 이는 좁고 하얀 통로를 지나는 동안 방문객의 이동 속도를 늦추고, 마음을 비워 새로운 감각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도록 유도한다. 중앙 코어에 도착하면 '에코 트랜짓'이라 불리는, '살아있는 외피' 속의 틈새를 통해 각 생태계 입구로 향하게 된다. 에코 트랜짓 끝에 있는 자동문이 열리면 생태계 공간이 나타나지만, 시야는 구슬 커튼에 의해 가려져 있다. 방문객들이 이 구슬 커튼을 통과할 때쯤이면, 눈으로 무언가를 보기 전에 이미 자연 서식지의 기후와 냄새, 소리를 먼저 경험하게 된다. 아극지 입구에는 방문객들이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얼음 터널이 설계되었으며, 터널 너머에서 들려오는 퍼핀과 펭귄의 소리, 그리고 그곳 특유의 냄새가 감각을 더욱 자극한다.

KANVA, a Montreal-based firm renowned for meaningful projects extending beyond the boundaries of architectural shapes and forms, is proud to unveil the delicate grandeur of the newly redesigned Biodome, a Montreal science museum that immerses visitors in the authentic environs of multiple ecosystems.

Housed in the former Velodrome, constructed for the Montréal 1976 Olympic Games, the Biodome opened in 1992 and is a jewel in the crown of a consortium of facilities that collectively account for the most visited museum spaces in Canada. After winning an international architectural competition in 2014, KANVA, co-founded by Rami Bebawi and Tudor Radulescu, was commissioned for the $25 million project by Space for Life, the body charged with overseeing operations of the Biodome, Planetarium, Insectarium, and Botanical Garden.

"Our mandate was to enhance the immersive experience between visitors and the museum's distinct ecosystems, as well as to transform the building's public spaces," notes Rami Bebawi, a partner of KANVA and the project's lead architect. "In doing so, we proudly embraced the role that the Biodome plays in sensitizing humans to the intricacies of natural environments, particularly in the current context of climate change and the importance of understanding its effects."

A complex storyline

From the onset, KANVA studied the tremendous complexity of the building, a living entity comprised of ecosystems and very complex machinery that is critical to supporting life. They realized that any type of intervention would need to be very delicate, and that a global strategy to the scale of the mandate would require careful coordination and management of numerous micro interventions. Every decision required consultations across multiple disciplines, and it became a truly collaborative effort that embraced KANVA's storyline.

"Everybody understood the global vision, and they carried that understanding with them in the spirit of collaboration," says Bebawi. "It was a very inspirational experience that will serve as a model for better addressing environmental issues in design in the future."

From an organizational perspective, KANVA began by targeting spaces that could be transformed in ways that would maximize the value of the building's architectural heritage. The carving of a new core combined with the demolition of the particularly low ceiling at the entrance of the building allows visitors to appreciate the impressive scale of the existing space. In gutting the existing ceiling, KANVA opened the space skyward to the building's extraordinary roof, composed of massive skylight panels that infuse an abundance of natural light.

A calming nucleus

With a massive open space now forming the core between the ecosystems, KANVA parametrically designed a living skin that they could wrap around the ecosystems, and which would serve as a guiding accompaniment to visitors. With exceptionally complicated structural engineering, the installation of the prefabricated pure white, biophilic skin was a monumental task. With no room for error, the skin was curved and stretched around a bowed aluminum structure, using tension, cantilevering, and triangular beams for suspension, and itself anchored to a primary steel structure. Mechanical junctions were also incorporated in order to accommodate a variety of movements and allow for on-site adjustments.

The translucent skin harmoniously interacts with the skylights above, with beveled horizons that elicit a sense of calm and infinity. The new core also amplifies the sensorial experience of visitors transitioning from its pure neutrality to the multi-sensorial discovery of its adjacent ecosystems. "It's a very powerful tool, half a kilometer in length and rising nearly four storeys," explains Rami Bebawi. "It's extremely emblematic of the space, and the white purity beautifully highlights and contrasts the original structural concrete."

Sensorial design

KANVA then focused on the journey itself, designing new passages aimed at transforming the existing linear path of discovery into a more dynamic experience, where visitors take charge of their own journeys through the Biodome's five ecosystems, housing more than 250,000 animals and 500 plant species. Conceptually aiming for a more immersive experience, KANVA focused its attention on soliciting senses, relegating sight to the end of the line behind sound, smell, and touch. From the calming lobby hall, the undulating living skin funnels visitors into a 10-meter tunnel leading to the central core, where their exploration of five ecosystems, including Tropical Rainforest, Laurentian Maple Forest, Gulf of St. Lawrence, Sub-Antarctic Islands, and Labrador Coast, begins.

The entry tunnel features a very subtle floor incline, intended to slow the pace of movement through a compressed white passage, and to void the mind for fresh sensory input. Once visitors reach the central core, smaller slits in the living skin, called eco-transits, lead them towards the ecosystem entrances. As automatic doors at the end of the eco-transit open into the ecosystem, it remains visually obstructed by a curtain of beads. By the time visitors pass through the beads, they have been exposed to the climate, smells, and sounds of the natural habitat before seeing anything. At the entrance of the Subpolar Regions, KANVA designed a new ice tunnel that acclimatizes visitors during the transition, while the sounds and smells of puffins and penguins ahead provide additional sensory stimulation.



A learning process

Before designing a new water basin for the facility's resident penguins, KANVA staff spent weeks with biologists and veterinarians in order to gain insight into the specie's swimming patterns. To provide an authentic feel to an observation point where visitors can observe beavers in their natural habitat, the firm studied the architectural prowess of the beavers. The idea emerged to let the beavers carve the wood themselves, which was then dried and used to line the interior of the space.

"Before you can even begin to design in an environment with living species all around you, education and a notion of humbleness are required," explains Bebawi. "We take basic assumptions about ourselves for granted when we design for other human beings, but designing for an otter or a sloth requires that you re-educate yourself."

The entire experience has enriched KANVA's journey as an architectural firm. The educational process has advanced their exploration of how buildings, rather than being barriers to external forces, can be rendered more permeable as harmonious cohabitations between humans and nature.

"We need to reconnect people with the environment, and the Biodome does that in a refreshing way that we are proud to have contributed to," adds Bebawi. "This project has provided us with six years of invaluable knowledge, preparing us for new and innovative approaches to future projects where architecture becomes a tool to promote and facilitate environmental change.

Architects KANVA (collaboration with NEUF architect(e)s) **Lead Architects** Rami Bebawi **Electromechanical engineer** Bouthillette Parizeau inc, **Structural Enginee** NCK inc, **Lighting design** La bande a Paul **Collaborating set designer** Anick La Bissonnière **Collaborating museologist** Nathalie Matte **Acoustics specialist** Soft dB **Specification writer** Atelier 6 **Photo** v2com

About KANVA

Founded in 2003, KANVA is a Montreal–based multidisciplinary architectural firm composed of 15 dynamic architects, whose work is at the forefront of thinking, imagining, drawing, and constructing collective space. KANVA' s approach seeks to re–question and transform the built environment, and the firm approaches each project as an opportunity to tell a story and to expand the scope and dialogue between art and architecture. KANVA embraces architecture, art, and science as learning tools for transforming the built environment for those who live in 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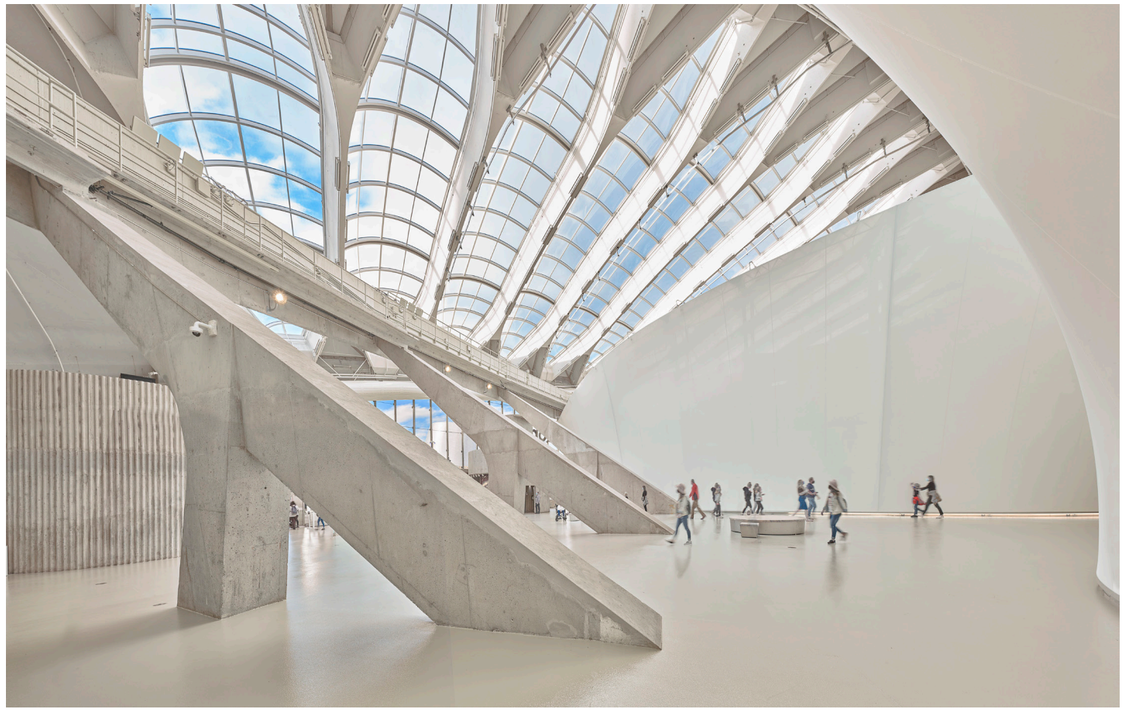
The award–winning firm has received numerous accolades and recognitions for its body of work, including the 2015 Emerging Architectural Practice Award from the Royal Architectural Institute of Canada. Most recently, KANVA was selected to provide art installations for the Canadian pavilion for Expo 2021–22 Dubai.






BIO–
MACH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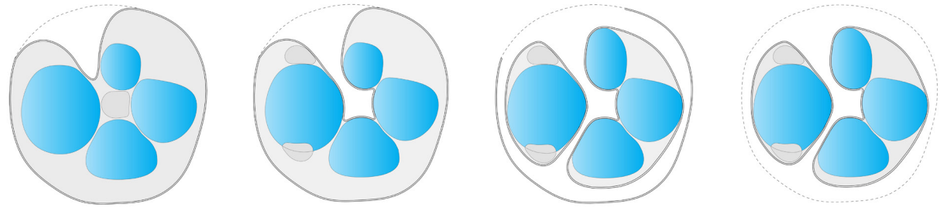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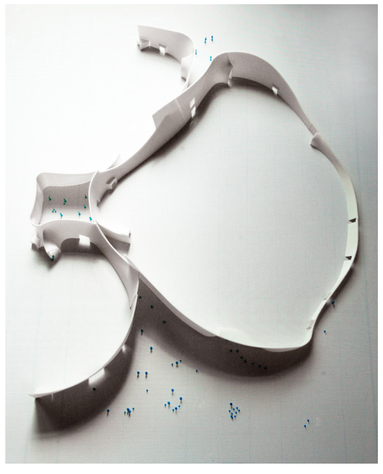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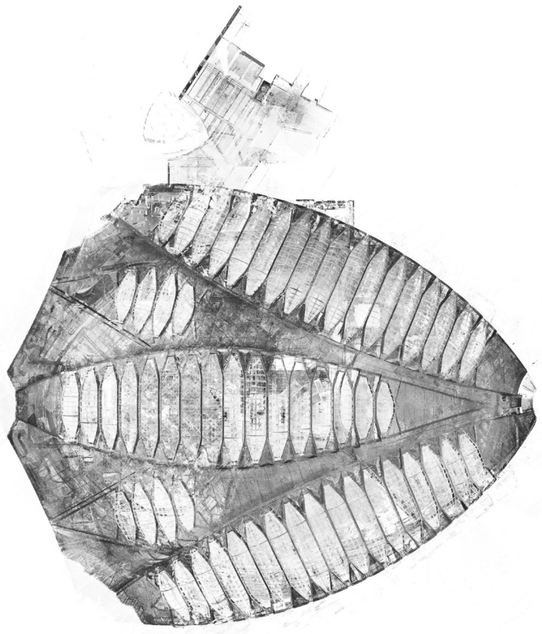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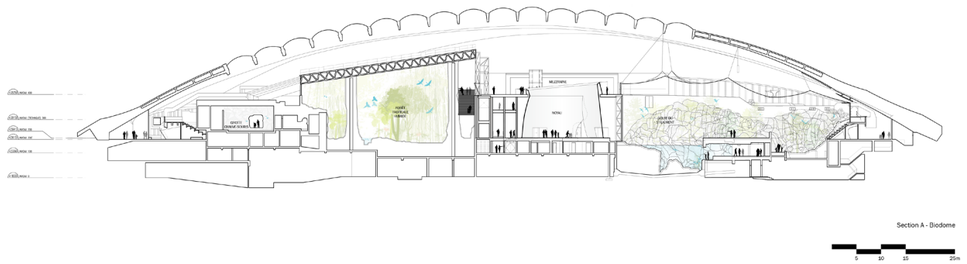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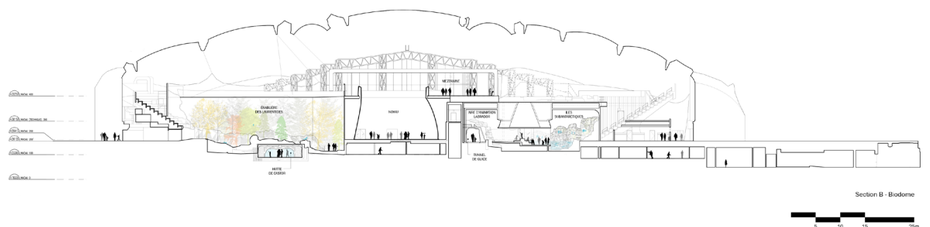

biodô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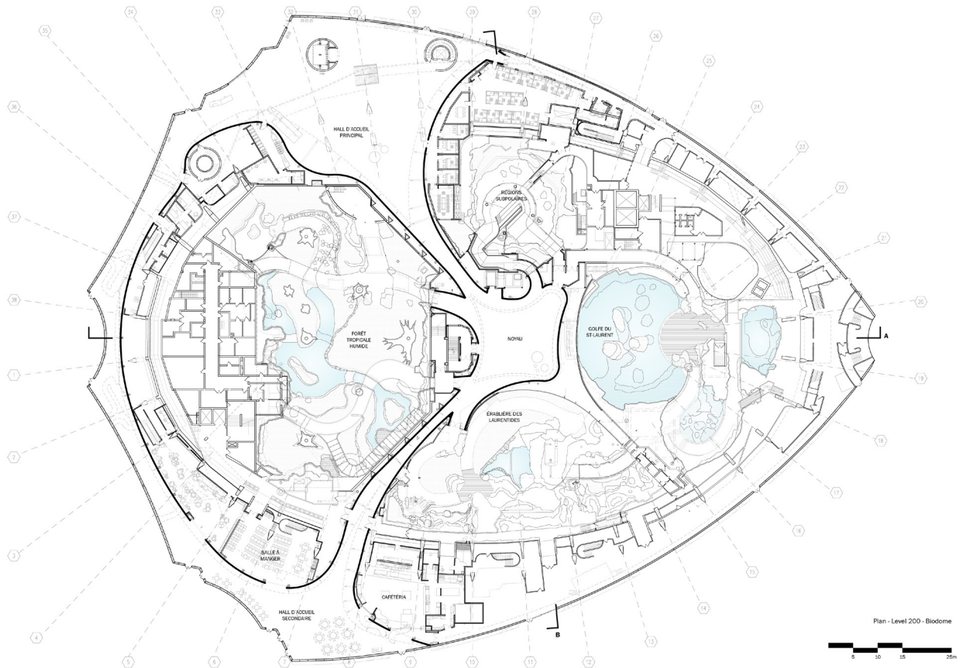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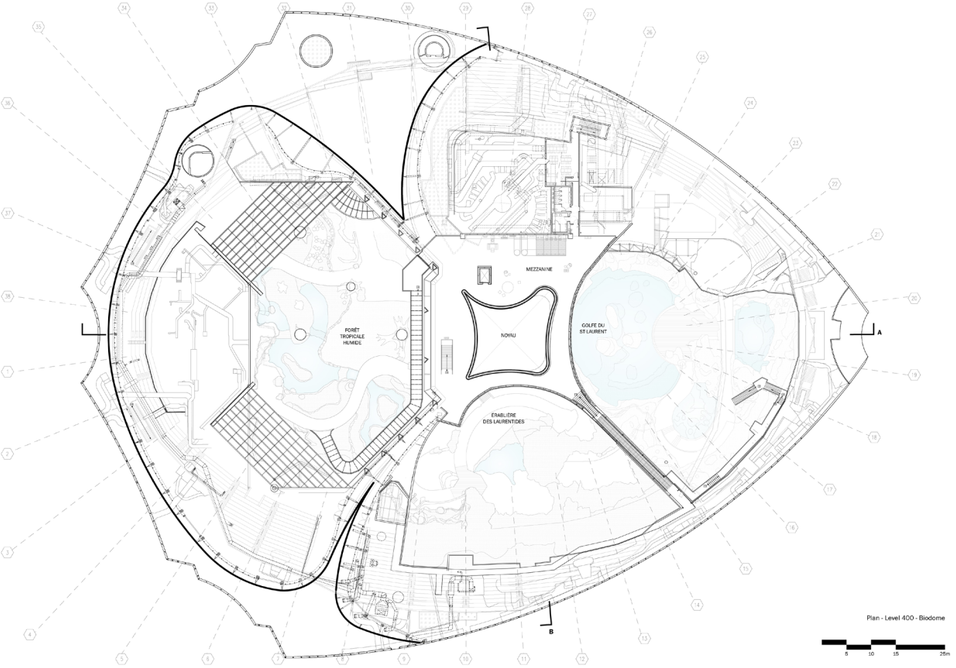
Section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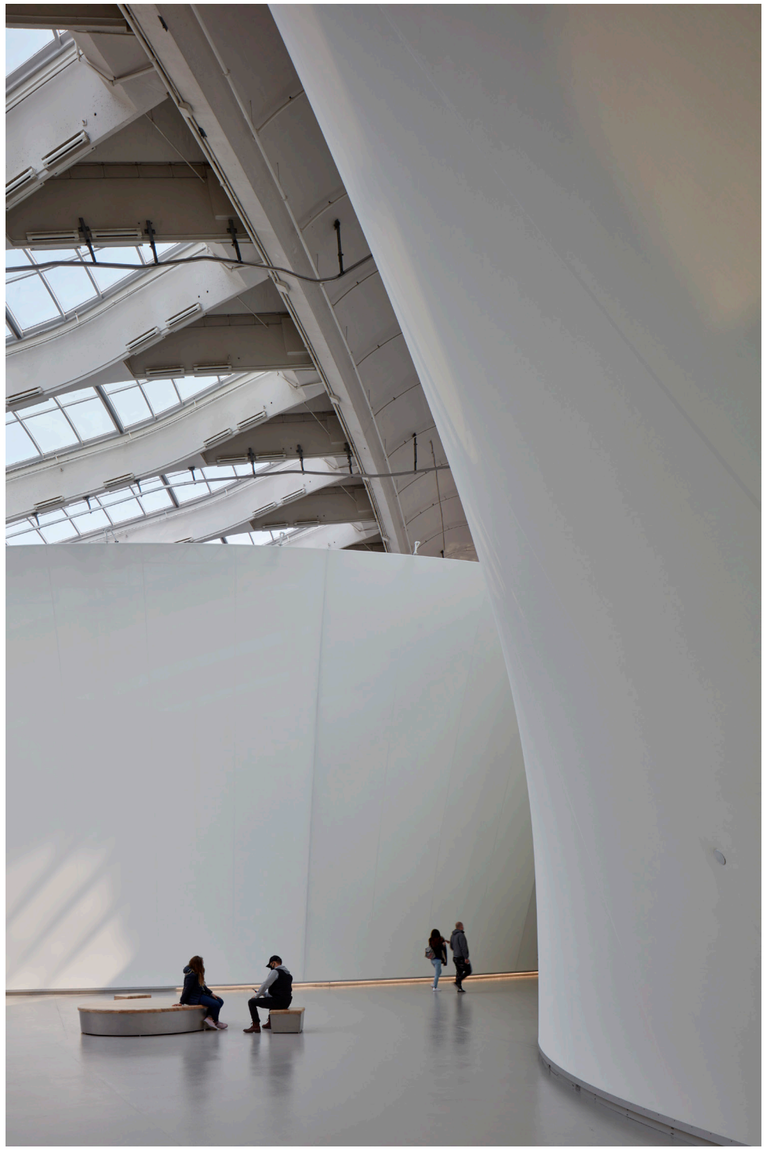
Section B



Floor Plan (Level 200–B iod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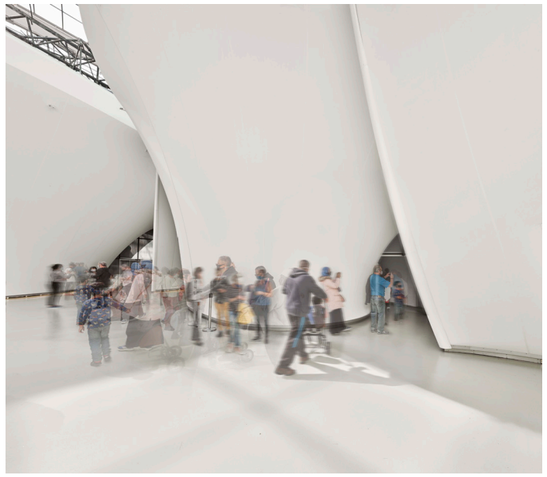


Floor Plan (Level 400–Biodome)






RÉGIONS SUBPOLAIRES
SUB-POLAR REGIONS
Côtes du Labrador
Labrador Coast
Amérique du Nord
North America
Amérique du Sud
South America
Îles subantarctiques
Sub-Antarctic Islands
RÉGIONS SUBPOLAIRES SUBPOLAR REGIONS




RÉGIONS SUBPOLAIRES
SUB-POLAR REGIONS
RÉGIONS SUBPOLAIRES SUBPOLAR REG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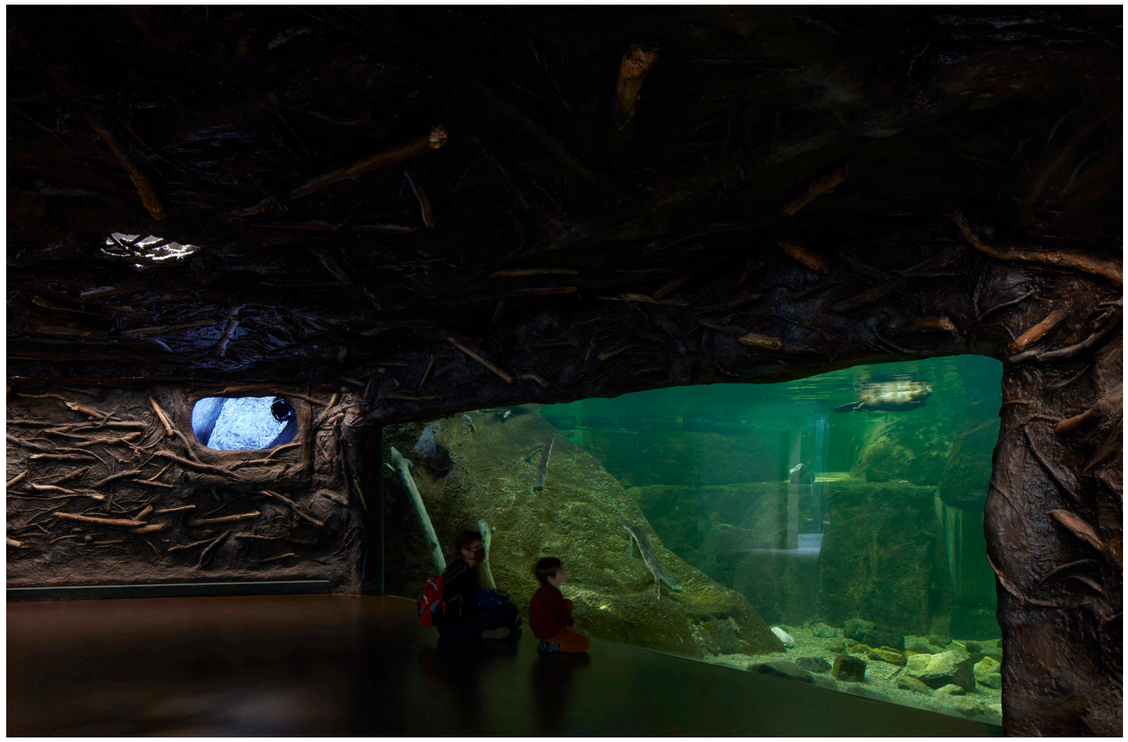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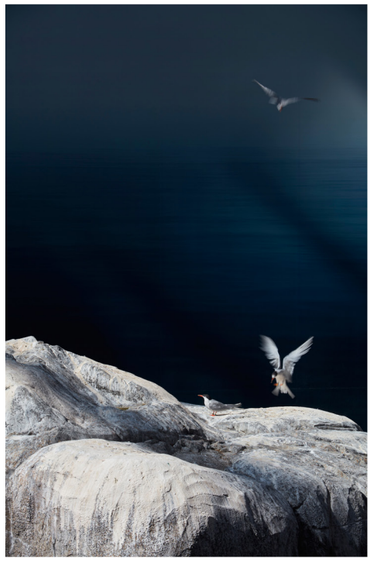

« Les animaux ne peuvent pas verbaliser leur douleur ni leur malaise. Pour poser un diagnostic ou suivre leur état de santé, on utilise entre autres les radiographies. »
adid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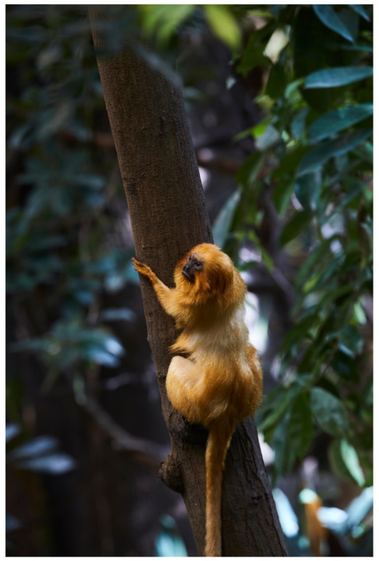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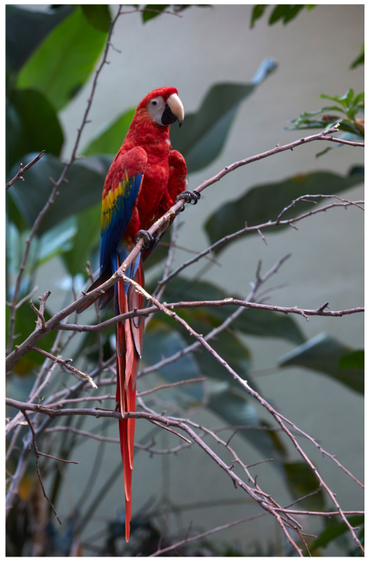


















파인 아일랜드 코티지

Pine Island Cottage

톰 푸제르 & 뷰로 템포 | Thom Fougere & Bureau Tempo



인테리어 디자인 톰 푸제르 & 뷰로 템포 **건축가** 그렌 와이스 **위치** 캐나다, 온타리오, 조지안 베이 **면적** 325㎡ **시공** 쿨터 도우 & 어소시에이츠 **조경** 존 로이드 & 어소시에이츠 **벽토** 세인트 레오 – 헤를루프 트롤레스 가데 **창문** 틸트 코 **바닥재** 몬서 – 프리미엄 유럽산 오크 **석재 바닥재** 셀렉트 스톤 서플라이 – 플레임드 에라모사 **조리대** 셀렉트 스톤 서플라이 – 캐스케이드 석회암 **목공** 바버 밀워크 **석조** 드윈터 메이슨리 – 필드스톤 **주석 바** 아틀리에 베르나르 쇼드롱 – 로우 퓨터 **욕조** 스튜디오 로호 – 클레이 시리즈 **맞춤 제작** 할리벗 우드워킹, 키트 라이팅 **사진** 알렉스 르사지, 톰 푸제르

Interior Design Thom Fougere & Bureau Tempo **Architect** Gren Weiss **Location** Georgian Bay, Ontario, Canada **Area** 325㎡ **Buuilder** Coulter Dawe & Associates **Landscape** John Lloyd & Associates **Plaster** St Leo – Herluf Trolles Gade **Windows** Tilt Co **Flooring** Moncer – Premium European Oak **Stone Flooring** Select Stone Supply – Flamed Eramosa **Countertops** Select Stone Supply – Cascade Limestone **Millwork** Barber Millwork **Masonry** DeWinter Masonry – Fieldstone **Pewter Bar** Atelier Bernard Chaudron – Raw Pewter **Bath Tub** Studio Loho – Clay Series **Custom** Halibut Woodworking, Kit Lighting **Photography** Alex Lesage, Thom Fougere

뷰로 템포(Bureau Tempo)

Tempo는 몬트리올에 기반을 둔 종합 건축 설계 사무소입니다. 우리는 맞춤형 주거 공간 및 호스피탈리티(숙박 · 상업 시설) 분야에서 세심하게 고민한 공간 경험을 구현한다. 고객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기능성과 아름다움이 조화를 이루는 통합적인 솔루션을 제시한다.

About Bureau Tempo

Tempo is a full-service architectural design office based in Montréal. We create thoughtfully considered experiences in custom residential and hospitality design. Together, in close collaboration with our clients, we seek holistic solutions that balance utility and beauty.

파인 아일랜드 코티지

앉을 수 있는 거친 돌, 예기치 않게 내리는 비–이러한 감각적 마찰은 야외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해소되며, 우리를 자연과 교감하게 한다. 나뭇결이 살아있는 벽면의 질감, 견고한 단철 난간, 그리고 샤워실 바닥의 화염 처리된 돌이 발에 닿는 감촉 등은 모두 '마찰'의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각은 현재의 순간에 온전히 머물게 하며, 공간과의 교감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준다. 중앙 거실 공간은 주방, 다이닝 룸, 자연석 벽난로가 중심을 잡는 거실, 그리고 야외 포치라는 네 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함께하는 시간을 장려합니다. 반면, 섬의 더 높은 지대에 위치한 침실 구역은 평화로운 안식처를 제공한다.

[공간의 여정]

방문객은 조약돌 모양의 오크 소재 문손잡이를 통해 부드러운 조명이 비치는, 오크로 마감된 낮은 현관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바닥이 계단식으로 낮아지고 천장고가 높아지며 마감재의 색조가 밝아짐에 따라 공간은 점차 개방되며, 마침내 메인 거실 공간이 모습을 드러낸다. "이 코티지의 설계 과정은 결과물만큼이나 아름다웠습니다. 건축주와 함께하며 얻은 개인적인 발견들과 대지 고유의 특징들이 의사 결정에 직접적인 영감을 주었죠. 의식이 이루어지는 모임의 장소로서 주방 아일랜드를 구상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는 소재에 대한 실험인 동시에 주방의 기능성을 극대화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 톰 푸제르

집의 중심부인 주방은 팬트리, 바, 아침 식사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바위 해변에서의 편안한 모임을 연상시키는 자연석아일랜드가 공간의 중심을 잡고 있다. 맞춤 제작된 수납장은 화이트 오크, 월넛, 라임스톤(석회암)으로 만들어졌다. 도자기, 조리 도구, 커틀러리, 리넨에 이르기까지 모든 디테일과 소품 하나하나가 세심하게 고려되었다. 팬트리는 식재료와 식료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능적인 마켓 스타일의 공간으로 재해석되었다. 팬트리 트레이를 활용하면 식재료나 커피, 칵테일 등을 팬트리와 인접한 퓨터 소재 바 사이로 쉽게 옮길 수 있다. "조명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둠이 주는 고요함을 해치고 싶지 않았고, 아주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마감재가 어떤 느낌을 줄지가 소재 선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 아담 로빈슨, 뷰로 템포

주방을 지나면 묵직한 목재로 맞춤 제작된 다이닝 테이블과 벤치가 나타나며, 이곳에서는 단차를 낮춘 거실과 벽난로를 내려다볼 수 있다. 이 벽난로는 주방 아일랜드와 동일한 자연석으로 마감되어 공간의 통일감을 준다. 한쪽에는 월넛 소재의 맞춤형 소파와 일체형 계단이, 다른 한쪽에는 자연석 벽난로가 자리 잡고 있어, 거실은 따뜻한 불길 속에서 함께 모여 놀이를 즐기거나 손님을 맞이하는 차분한 공간으로 구상되었다. 양방향 벽난로는 코티지 동선의 중심에 위치하여 실내 공간과 스크린이 설치된 야외 포치를 모두 따뜻하게 데워준다. "초기에 가족들과 현장을 방문했을 때, 우리는 물가에 있는 얼룩덜룩한 돌이 깔린 해변을 따라 걸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촉각적인 경험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실내에 구현하는 것이 소재 선정의 주요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종종 최소한의 손길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 톰 푸제르

주문 제작한 벽부등과 지역 대장장이가 만든 단철 난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공간을 경험하는 내내 촉각적인 리듬감을 자아낸다.

[프라이빗 공간]

침실 공간은 유리로 된 높은 통로를 통해 메인 거실과 연결되어 있다. 한쪽에는 게스트룸과 이층 침대가 있는 아이 방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개인 서재와 욕실이 딸린 안방이 있다. 콘크리트에서 목재, 그리고 현지에서 채취한 에라모사 석재로 이어지는 소재 변화는 이 코티지를 이동하는 경험에 변화를 준다. 석재 바닥은 불에 그을려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듯한 질감과 감촉을 선사한다. "서민과의 초기 대화에서 세월의 흔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멋스러워지는 소재를 사용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고, 이는 풍부한 소재 선택과 예상치 못한 조합으로 이어지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 애덤 로빈슨, 뷰로 템포

안방은 넓은 수납공간을 자랑하는데, 한쪽 끝에는 오크 원목으로 마감하고 다른 쪽 끝에는 철제 프레임에 매달린 맞춤형 러그 커버 옷장을 설치하여 시각적으로나 음향적으로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맞은편 침대와 화장대에는 같은 소재의 자연석이 배경으로 사용되었다. 전용 욕실에는 맞춤 제작된 석재 더블 세면대, 불꽃 무늬 석재 샤워 바닥, 세라믹 욕조가 있어 매일의 일상에 따뜻하고 평온한 분위기를 더한다.





A rough stone to sit on, an unexpected bit of rain — this is the kind of friction that dissipates naturally when we're outdoors, bringing us into communion with nature. The texture of the wood-grain walls, the sturdiness of the wrought-iron handrails, and the grip of the flamed stone underfoot in the shower all suggest friction, rooting you in the moment and enriching your exchange with the space. In the central living area, four distinct zones — kitchen, dining room, living room anchored by a fieldstone hearth, and outdoor porch — encourage togetherness, while the sleeping quarters, situated at a higher point on the island, offer a peaceful refuge.

[The Spatial Journey]

Guests are welcomed by a pebble-shaped oak door handle and led into a low, gently lit, oak-lined entryway. The space gradually opens as the floors terrace down, the ceiling height grows, and the material palette lightens, revealing the main living space. "The design process for the cottage was as beautiful as the final product, with many personal discoveries alongside the client and site-specific cues that directly informed our decision making. The kitchen island as a ritualized gathering point was one such instance – it became not only an experiment with materiality, but also a highly functional element of the kitchen." — Thom Fougere

At the heart of the home, the kitchen — complete with a pantry, bar, and breakfast nook — is anchored by a fieldstone island evoking the feel of casual gatherings on rocky shores. The custom-designed cabinetry is crafted of white oak, walnut, and limestone. Each detail and item was considered down to the ceramics, cookware, cutlery, and linens. The pantry was reimagined as a functional, market-style space with produce and food on full display. The pantry trays allow for easy transport of ingredients, coffees, and cocktails to and from the pantry or adjacent pewter bar. "Lighting was often at the heart of the decision-making process. We did not want to disturb the serenity of the darkness on the island and how finishes would feel when very dimly lit was paramount in selecting materials." — Adam Robinson, Bureau Tempo

Beyond the kitchen, a custom heavy-timber dining table and bench overlook the sunken living room and hearth, framed by the same fieldstone as the kitchen island. Framed by a bespoke walnut sofa and integrated stair on one side and a fieldstone hearth on the other, the living space was envisioned as a calm place to gather, play, and entertain by the warmth of the fire. The double-sided hearth is central to the cottage's circulation, warming both the interior and the screened outdoor porch. "When visiting the site early on with the family, we spent time walking alongside the mottled, stone-covered beach by the water. Translating that tactile experience into the interior in unexpected ways became a guiding goal in selecting materials. It often came down to finding the minimum touch with the maximum impact to achieve this." — Thom Fougere

Repeated use of custom-cast wall sconces and wrought-iron handrails crafted by a local blacksmith creates a tactile rhythm throughout the experience.

[The Private Quarters]

The bedroom wings are connected to the main living area by a glazed, elevated breezeway. A guest bedroom and children's room with bunk beds are located on one side, while a private office and primary bedroom with an ensuite are on the other. A shift from concrete to wood to locally sourced Eramosa stone denotes the experience of traversing the cottage. The stone floor has been flamed to create a weathered, timeworn appearance and foot feel. "Early conversations with the client about embracing patina and encouraging the use of materials that would age well established a direction that led to rich material selections and a few unexpected pairings." — Adam Robinson, Bureau Tempo

The primary bedroom features expansive storage, oak-lined at one end and custom rug-fronted closets suspended on iron frames at the other, softening the room both visually and acoustically. Echoed use of fieldstone provides a backdrop to the bed and vanity opposite. In the ensuite bathroom, a custom double-basin stone sink, a flamed stone shower floor, and a ceramic tub create a warm and tranquil setting for daily rituals.



























